'巧匠'이라 칭송한 조선 후기 대표 조각승

〈교장〉

최선일 위원의 佛母列傳

② 색난(色難)

조선 후기(1600~1910)에 불교조각사의 최정상에 있는 작가는 색난(色難) 스님이다. 당시 대부분의 불상을 만든 조각승들을 화원(畵員), 양공(良工) 등으로 불렀다. 하지만 색난 스님은 달랐다. 일부 문헌을 살펴보면 색난 스님은 솜씨가 교묘(巧妙)한 목수(木手)라는 의미로, '교장(巧匠)'이나 '조묘공(彫妙工)'으로 기록돼 있다. 이만큼 당시에도 색난 스님의 조각 기술의 명성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색난 스님이 만든 불상은 전국에 걸쳐 20여 건 수백 점에 이른다.

아직까지 색난 스님은 언제 태어나서 열반에 들었는지, 어느 스승 밑에서 조각을 배웠는지 등 조각승(彫刻僧)이 된 배경에 대한 기록이 전하지 않지만,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 발원문과 사찰 연혁을 적은 사적기 등을 통하여 스님의 활동 시기, 지역, 조각승의 계보, 불상 양식 등을 추정할 수 있다.

색난 스님이 제작한 가장 오래된 작품은 1680년에 전남 화순 영봉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과 시왕상(광주 덕림사 봉안)과 흥개사 향로전 목조관음보살좌상(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이다. 그때 색난 스님이 불상 제작을 주도한 것을 보면 최소한 1670년대 불상 제작에 수화승으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스님은 1682년에 전남 순천 동화사 응진전 불상, 1683년에 경남 고성 운흥사 명부전 불상, 1684년에 전남 강진 정수사 나한전 불상, 1685년에 전남 고흥 능가사 응진전 불상을 조성했다. 특히 능가사 응진전 불상을 제작할 때 '가섭대시주(迦葉大施主) 통정겸금어색난(通政兼金魚色難)'으로 언급되어 불상을 만들면서 시주자로 참여하였고, 정3품(正三品) 문관의 품계에 해당하는 통정대부(通政大夫)의 공명첩(空名帖)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님은 1678년에 경남 김해 은하사 명부전 불상을, 1689년에 일본 교토 고려미술관과 개인 소장 목조삼존불감을, 1693년에 전남 구례 천은사 응진전 불상을, 1694년에 전남 화순 쌍봉사 대웅전과 극락보전 삼존불을 제작하였다.

그 후 스님은 1698년에 고흥 능가사 범종 조성에 시주자로 참여하면서 전남 해남 성도암 목조보살좌상(제주 관음사 봉안)을 개금하였다. 스님은 1700년에 해남 성도암에 석가삼존상과 나한상을, 1703년에 구례 화엄사 각황전 불상 가운데 석가와 관음보살을, 1705년에 경남 하동 쌍계사 보현과 문수동자상 등을 제작하고, 1707년에 고흥 능가사 불상을 만들면서 〈선문염송설화(禪門拈頌說話)〉 간행에 대시주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1709년에 고흥 금탑사 보살좌상(고흥 송광암 봉안)과 목조삼존불좌상(광주 덕림사에 봉안되었다가 1980년에 화재로 소실)을 주도적으로 조성했으며, 1711년에 고흥 능가사 대웅전 기와와 1730년에 전남 곡성 관음사 대은암 범종(곡성 서산사 소장) 제작에도 시주자로 참여했던 이력이 있다.

고흥 능가사 목조석가여래좌상. 각진 얼굴에 눈꼬리는 살짝 올라가 눈을 반쯤 지그시 뜨고, 입에는 은은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다. 능가사는 색난 자신이 주석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솜씨가 교묘한 목장인으로 추앙

전국 걸쳐 수백 점의 불상 제작

조선후기 불교조각사 한획 그어

생몰 미상… 발원문 · 사적기 통해

색난 스님의 활동 지역 등 가늠

주로 호남 지역 중심 불상 조성

고흥 능가사 주석 · 부휴문도 추정

색난 스님이 어느 사찰에 주석했는지는 1703년에 만든 화엄사 각황전 불상에서 발견된 발원문에 '팔영산사문(八影山沙門)'으로 언급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고흥 능가사에 주석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님은 1750년에 건립된 고흥 능가사사적비(楞伽寺事蹟碑) 후면에 가선(嘉善) 색난으로 언급되어 1709년에 불상을 만든 이후, 종2품(從二品) 문무관의 품계에 해당하는 공명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문헌을 통하여 색난 스님은 1640년을 전후하여 태어나서 1660년대 불상 제작의 수련기와 보조화승을 거친 후, 1680년부터 불상 제작에 우두머리인 수화승으로 활동하였다. 스님은 고흥 능가사에 거주하면서 영남과 호남 지역의 많은 사찰에 명부전이나 영산전 불상을 주로 조성하였는데, 이는 사찰의 주전각인 대웅전에 불상이 색난 스님이 활동하기 이전에 대부분 정비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스님은 불상을 제작한 후에 받은 수입으로 자신이 거주하던 고흥 능가사 범종, 불경 간행, 기와 제작 등의 많은 불사에 대시주자로 참여하였다.

아직까지 색난 스님에게 조각을 가르쳐 준 스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스님의 조각승 계보는 색난(色難, 色蘭)→ 충옥(忠玉, 沖玉), 초변(楚卞), 일기(一機) → 하천(夏天), 석준(碩俊), 종혜(宗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색난 스님은 고흥 능가사에 거주한 것으로 보아 17세기 전반에 형성된 부휴문도(浮休門徒)에 속한 스님으로 볼 수 있다.

색난 스님이 만든 고흥 능가사 영산전 등의 목조석가여래좌상은 높이 100㎝ 정도의 중형불상이다. 앞으로 숙인 머리에는 소라모양의 나발(螺髮)이 촘촘하고, 깨달음의 상징인 육계(肉髻)는 흐릿하게 있고, 머리 정상부에 원통형의 정상계주(頂上髻珠)와 이마 위에 반원형의 중간계주(中間髻珠)가 있다.

각진 얼굴에 눈꼬리는 살짝 올라가 눈을 반쯤 지그시 뜨고, 코는 원통형으로 입에는 은은하게 미소를 머금고 있다. 두꺼운 대의는 변형통견으로, 대의자락은 오른쪽 어깨에서 반달모양으로 걸친 후 팔꿈치와 배를 지나 왼쪽 어깨로 넘어가고, 다른 대의자락은 왼쪽 어깨를 완전히 덮고 내려와 결가부좌한 다리 위에 펼쳐져 있다.

불상의 뒤에는 목 주위에 대의 끝단을 둘렀고, 왼쪽 어깨에 앞에서 넘어온 오른쪽 대의 끝자락이 길게 늘어져 있다. 대의 안쪽에 입은 승각기(僧脚崎)는 가슴까지 올려 끈으로 묶어 도식화 된 5개의 연판형(蓮瓣形) 주름이 접혀 있다. 소매 자락은 왼쪽 무릎을 연잎 모양으로 완전히 덮여 있다. 오른손은 촉지인(觸地印)을, 왼손은 다리 위에 가지런히 놓은 채 손바닥을 펴고 엄지와 중지를 맞댄 수인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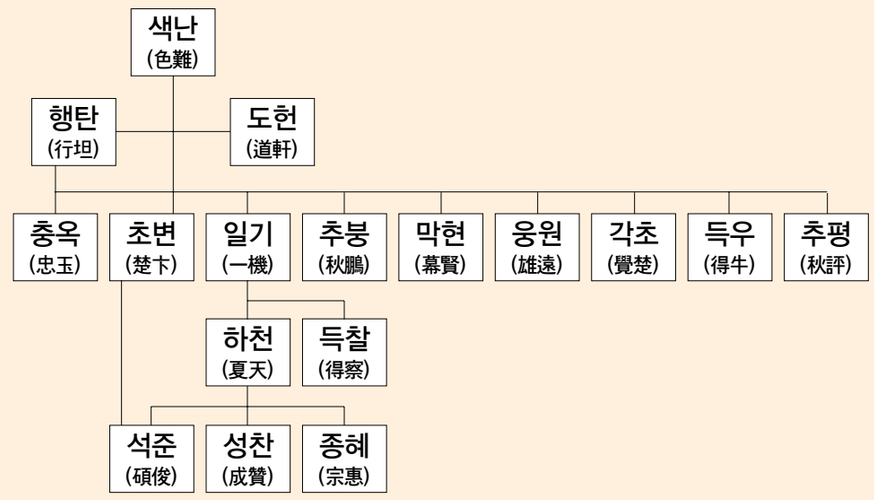
또한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은 신체비율, 인상, 승각기가 유사하지만, 오른쪽 어깨에 걸친 대의 안쪽에 편삼을 걸치고 있는 변형우견편단의 착의법이 다르다. 미륵과 제화갈라 보살은 여래상과 착의법이 같고, 화염과 연화문이 장식된 커다란 보관을 착용하며, 지장보살은 민머리의 성문비구형을 주로 만들었다. 이런 옷을 걸친 방법이나 소매 자락 처리는 색난 이전에 활동한 조각승 가운데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인균(印均)스님이 제작한 여수 흥국사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유사하다.

영산전에 석가여래좌상과 같이 봉안된 색난 스님이 만든 나한상은 바위 위에 결가부좌(結跏趺坐), 반가좌(半跏坐), 유희좌(遊戱坐) 등의 다양한 자세로, 해태와 코끼리 등을 잡거나 경전을 들고 있다. 얼굴의 형태는 전체적으로 각이 진 얼굴에 눈꼬리는 약간 위로 올라가고, 원통형의 코, 어깨까지 내려온 귀, 살짝 미소 짓는 입 등이 목조여래좌상과 같다. 다만 나한상의 착의는 장삼 위에 가사로 왼쪽 어깨를 덮은 모습은 같지만, 장삼 안쪽에 내의(內衣)를 입은 상과 입지 않은 상으로 나눌 수 있고, 대부분의 나한상이 바위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가사가 늘어져 바위 위에 끌자락의 주름이 좌우대칭을 이룬다.

그밖에도 색난 스님은 개별 스님이 모시던 목조불감이나 명부전의 시왕상 등 다양한 형태의 존상을 만들었고, 조선후기 불교조각사의 절정기를 이끌었던 호남을 대표하는 조각승이다.

색난과 그 계보 조각승이 제작했다고 추정되는 불상은 강진 백련사 응진전, 구례 화엄사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 서울 봉원사 목조지장보살좌상, 순천 선암사 불조전 53불상과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좌상,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고성 옥천사 나한전 협시보살좌상, 남원 실상사 목조여래좌상, 인천 시립박물관 목조보살좌상, 해남 미황사 응진전 목조여래좌상 등으로, 이들 불상은 양식적으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전반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조각승 색난과 문하 조각승들의 계보



능가사 범종의 시주자 부분을 확대 촬영한 것. 색난 스님이 시주자로 포함돼 있다.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두십시오

황금 나한도와 달마도를 모셔두면 집안의 수호신이 되어 잡귀는 범접을 못하고 발산하는 성스러운 기운은 가정의 평안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 작품크기 30㎝×30㎝ (액자전체 50㎝×40㎝)
- 16나한들의 내력과 이름들을 기록한 16나한설명서를 드립니다.
- 촬영상의 한계로 선이 검게 나왔으나 실제로는 99% 황금색임

진품소림달마도

- 작품크기 30㎝×30㎝ (액자전체 50㎝×40㎝)
- 청곡화백의 진품 소림달마도입니다.
- 진품확인서를 함께 드립니다.

작 품 가 격

- 황금 16나한도 + 진품소림달마도 : 178,000원
- 황금 16나한도 : 128,000원 (액자포함)
- 진품소림달마도 : 78,000원 (액자포함)
- 나 한 도 족 자 : 1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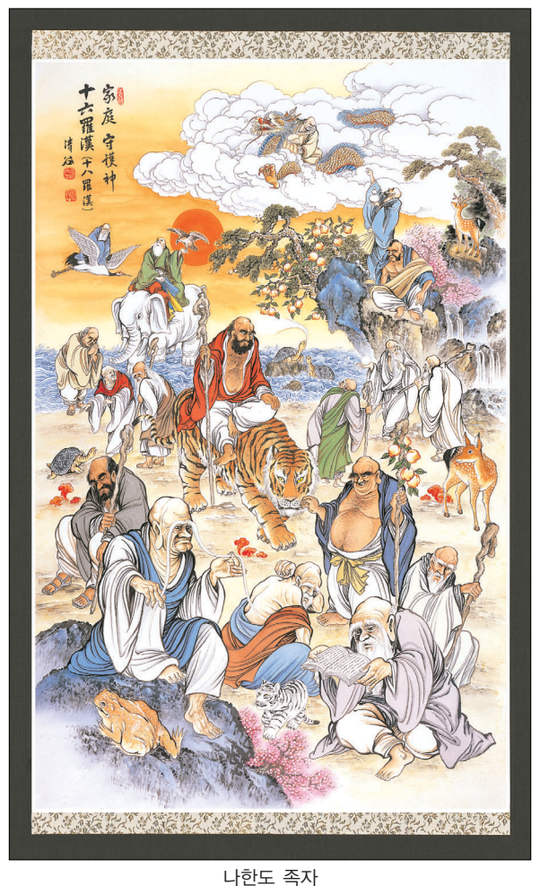
16나한님은 깨달음의 징표이며, 최고의 성자이신 위대한 열여섯분의 나한들 그 자유분방하고 신비한 모습들을 황용나한, 복호나한 두분을 추가하여 18나한으로 도판(평면도자기)위에 순도 99프로의 순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나한은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나한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적인 나한이며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자로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떠난 성자이십니다.
황용나한은 미륵불의 화현이며 용 위에 복을 실어 중생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며 복호나한은 맹수를 다스리고 악귀를 물리친다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전 16난한들과 그의 권속나한들에게 미륵불께서 오실때까지 중생들을 제도하고 불법을 수호하며 중생들께 복전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셨다.

진품소림달마도는 달마대사의 34대 제자이시고 한국호국불교 소림선종 방장이신 석연화 스님께서 글을 쓰시고 중국소림사 한국본부문화원 운영위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께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하신 작품입니다.

황금순금 나한도 (순도 99%순금)

진품 소림 달마도



나한도 족자

▮ 제작 : 중국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위원장 **청곡** | ▮ 판매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수제 작업으로 발송은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